

광주 집결 정치권 “오월 정신 계승...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피해자 여전히 고통” 김용태 “계엄 사과”
이준석 “5월 영령 모시는데 소홀함 없을 것” 약속
김문수 기념식 불참...이재명 “대오 각성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누구보다 5월 정신 잘알아”

정치권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전날 묘역에 참배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는 불참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프고 슬픈 계절”이라며 “유족들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함께 해주셨다”며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추모 인사를 전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반성해야 한다.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바뀌어 가겠다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 호남분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기자들에게 “이미 5월 초에도 당원들이 5월 영령 한 분 한 분에게 올리는 편지를 써서 묘역에 남기고 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5·18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광주 시민의 충격이 더 했을 것이다. 빨리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동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대선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민국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를 하기 바란다”며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태 위원장은 “김 후보께선 젊을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목숨 바쳐 싸워오셨던 분”이라며 “5월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 진정성

을 앞으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새로운 정부서 수립”...“12·3 사태 일어나지 않아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18정신 헌법 수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서 “투표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정 짓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미래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절저하고 립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의 이야기는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 힘”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투표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정 짓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SNS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송고한 5·18 정신을 계승해 다시는 이 땅에 12·3 비상계엄 같은 헌정파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 시작이 바로 5·18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대표로 기념사를 하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언급도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지만 5·18 정신과 오월 영령들은 45년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죽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도록,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5·18정신은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그리고 2024년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지난해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정신적 지주가 됐고 행동하는 시민의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5·18은 과거가 아니고 우리 곁에 늘 살아 숨 쉬는 역사이다.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기원...‘민주의 종’ 33번 타종

18일 오후 5시 18분...5·18정신 전국·세계화 염원

광주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8일 오후 5시 18분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5·18 기관·단체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올리는 4·16 세월호 참사, 6·9 학동 참사, 1·11 화정아이파크붕괴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표와 ‘12·3 비상계엄’ 당시 무효선언연석회의 참석 인사 등이 특별 초청돼 의미를 더했다.

또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며 윤상원 열사의 기자회견을 통역한 데이비드 리 돌린저 광주명예시민 (한국명 임대운), 5·18 당시 여성 시민군으로 활동한 임영희씨,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갈루 수 자트모크 ‘아시아 정의와 권리’ 상임이사

등도 함께 타종에 참여해 연대의 의미를 나눴다.

이들은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후 5시 18분 정각에 맞춰 ‘민주의 종’ 33회 타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민주의 종 타종식은 더욱 뜻깊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광주의 오월은 세계와 통하는 보물창고가 됐고, ‘12·3 비상계엄’으로 1980년의 계엄이 미래 세대에 살아있는 역사가 됐으며, 자랑스러운 광주를 다시 만나게 됐다”며 “80년 5월의 광주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의 종’은 임진왜란과 한말의 병 정신,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의거, 5·18민주화운동 등 빛나는 광주정신을 후대에 길이 전하고자 2005년 10월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상징물로 5·18민주광장에 건립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상욱, 민주당 입당 선언 “국힘, 견제 기능조차 못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에 입당해 바둑에 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능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견제와 균형을 원리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상의, 군공항 이전 등 현안 공약집 전달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의 간담회

광주 경제계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민·군공항 이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지역 현안 이 담긴 공약집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출리메이인 광주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산업 현황과 기업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대선 후보의 지역 정책 공약 및 향후 국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상임의원 등 20명과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조인철·정진욱 국회의원, 시장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광주상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접 발간한 ‘광주지역 경제계 핵심 현안’ 공약집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출리메이인 광주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약집에는 광주 민·군공항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및 보급 확대, GGM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 중소기업 산재 예방 중심 지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상속세 및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전남은 미래차, 에너지, AI 등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지만 광주

민·군공항 이전,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전달된 경제계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지역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은 민생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논의된 과제들이 중앙당과 후보에게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cdw0918@gwangnam.co.kr

AI 생태계 표준도시·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국민의힘 광주·전남 공약 발표...“디지털 문화 중심지”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를 약속하겠다고 지난 17일 약속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 4·3의 안전한 해결과 상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광주를 ‘인공지능(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X(AI 전환) 실증밸리 조성 및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본부는 “지역민들의 염원과 뜻을 담고,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호남 지역민을 위한

약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제주에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호남권에 고속철도·고속도로망 등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구 간 ‘달빛 철도’를 조기 착공해 호남과 영남의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한편, 여수-익산-광주-목포 구간에도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연계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C)→광산(C)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고, 광주와 영암·고흥, 여수와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